

오피니언

光日春秋

김용택



남도 쪽 마을을 지나다 보면 마을 앞에는 여지없이 커다란 느티나무들이 있다.

마을 앞에는 정자나무는 마을의 앞을 지켜주고 마을 뒤에 있는 느티나무는 마을의 뒤를 지켜 준다.

정자나무는 마을 국회의사당

작고 조촐하고 가난한 마을의 뒤나 앞에 심어진 느티나무는 수령이 오래 가고 또 모양이 풍성해 보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마을을 풍요롭게 가꾸어주기도 한다.

정자나무라고 하고 당산나무라고도 하는 이 나무의 종류는 대개 느티나무, 팽나무, 또는 서 나무가 많다.

정자나무 밑이 텅텅 비어간다

우리 마을에는 네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마을 앞 강 언덕에 심어 가꾼 이 느티나무를 정자나무라고 부른다.

앞이 무성한 이 나무는 그늘이 넓고 짙었다. 아무리 더운 날이라도 이 나무 아래 들면 바람이 일고 땀이 개었다.

사람들이 편히 누워 낮잠을 잘 수 있었다. 잠을 자지 않은 사람들은 쉼을 삼기도 했고, 장기를 두기도 했고, 아이들은 모래를 가지고 놀기도 했고, 고누를 두기도 했고, 또 어떤 날은 마을의 일로 대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나무 아래에서는 마을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다가 오랜 시간 동안 마을 사람들 입술에 오르내린 후 이 나무 아래에서 또 헤어져 되었다.

비유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이 나무는 마을의 '국회의사당'이었다. 우리 마을

의 모든 역사를,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을 이 나무 아래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역사를,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든 비리를 다 알고 있을 이 나무 아래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며 시조를 하셨다. 청사언이아이아이이 아이, 으으으으, 아이이아이, 아아아아아, 하시다가 한음을 낮추거나 높여 또 으으으으, 아아아아아, 아이이아이 하셨다. 내가 듣기에는 참으로 지루한 아아나, 으나, 아이이었다.

사라져가는 농촌 공동체

그 어른의 노래가 너무 단조롭고 지루했던 내가 어느 날 시조를 듣고 있다가 참을 수가 없어서 "근데요. 할아버지 왜 맨날 청산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른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시끄럽다. 이놈아!" 하고 또 그 '청산이아이아이'였었다.

눈이 맑으신 분이셨다. 흙로 깨어 앉아 그렇게 청산을 찾다가 그 어른은 햇살 속으로 가만가만 걸어가 강변에서 소풍을 주워 바게트 가득 담아 짙어지고 집으로 가셨다.

매미들만 무성한 정자 나뭇잎 속에서 귀가 따갑게 울고 있다. <시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미분양 주택 추가대책 '뺨질식 처방' 안돼야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모양이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추가대책을 검토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은 지난해 9월과 지난달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지난해 9월 대책은 공공기관과 민간펀드를 활용해 미분양 주택 2만5천 가구를 올해 말까지 사들인다는 게 핵심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늘어만 가는 등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오히려 준공 후 미분양마저 팔리지 않아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시중에서는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미분양이 적체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미분양을 부추기고 있다는 불만 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 뺨질식 처방이 아니라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양도세를 한 시점으로 면제해주는 등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추가대책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특히 추가대책은 지방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는 등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더 이상 땀만 들이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 지방 건설사도 정부의 대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분양가 인하 등 자구노력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엔 칠레산 '다이옥신' 돼지고기라니

허용치 이상의 다이옥신이 함유된 칠레산 돼지고기가 시중에 유통돼 파문이 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6월 수입된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치를 넘은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어제 밝혔다.

검역 당국은 수입업체에게 수입물량을 폐기하고 같은 작업장의 돼지고기를 회수토록 했지만 '능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문제가 된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물량 104.7t 중 다이옥신 검출로 불합격된 25.9t을 제외한 78.8t은 이미 검역을 통과해 시중에서 대부분 소비됐다고 한다.

문제는 검역체계다.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처음 검출된 것은 지난 3월이라고 한다. 검역 당국이 리콜과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여일을 보낸 것이다. 당국은 검출 초기, 해당 작업장의 모든 돼지고기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니었다

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검역 당국은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발 방식을 약속했으나 식품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근본적 대책 없이 뺨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칠레산 '다이옥신' 돼지고기 사태도 능장 대응으로 국민들이 사막도둑 방치한 꼴이 됐다.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팽배하다. 특히 우리의 식탁이 국제화되면서 수입식품에 대한 민감한 반응은 보이고 있다. 허술한 검역체계가 능장 대응으로는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 오히려 불신만 키울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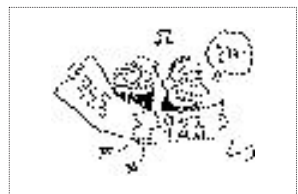
정부는 검역체계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오는 28일부터 미국산 LA갈비 배추는 쇠고기 가 국내에 반입되면 쇠고기 안전문제가 또 부각될 수밖에 없다. 식품 안전은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된다. 정부는 국민들이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의회에 출석하거나 일할 때 의원들이 일당을 받는 지방의회가 올해 일본에 등장했다. 인구가 6천700여명인 일본 후쿠시마 현 아마쓰리마치(矢野町) 지방의회 10명이 주인공이다.

다양한 인재를 지방의회로 끌어들이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유급직 전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특히 지난해 대다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려 말썽을 빚었다. 결국 중앙정부가 44개 광역 및 기초의회에 인하 권고를 내리는 등 자치를 표방하는 지방의회의 체면을 구겼다.

의정비



나주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 나주시의회에 이달 분 의정비 317만원 반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의회 출납봉쇄도 검토하고 있다. 다. 그럼에도 전국 광역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5천284만원이며 기초의원들은 3천766만원에 달한다. 일본과 국민소득 격차를 감안하면 배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당초 무노동 무임금으로 출범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유급직으로 전환한 것은 2006년부터다.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가 출범 17년째를 맞았으나 여전히 감투 싸움에 자질 시비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권위는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스스로 제 살 깎는 의회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김재열 사회2부장 ajkim@

기고



정정일

최근 광주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핫이슈라면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광주 유치시도였을 것이다.

기존 광주의 이미지 '민주의 성지, 교육·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과 별개로,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돼 왔던 지역민들로서는 광주를 세계에 알리고 자연스럽게 늘어날 관광 수요까지 기대하고 세계적인 대회 유치를 염원했다.

결과는 애석하게도 대회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유치 과정에 대한 논란이 일어 지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안타까운 상황도 지켜보아야 했다. 다

효과를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는 세계 스포츠 축제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 후에도 과거대회 유치도시로서의 광주에 대한 관심과 신뢰로, 우선적으로 방문을 결심하게 만들어 관광 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개최 기간 동안 전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으로, 지역의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세계 속에 광주를 널리 알리게 된다. 문화 중심으로 거듭나고 저비용의 광고 효과까지 거둬 '관광광주'로서의 경쟁력 또한 갖추게 되는 것이다. 또한 향후, 잠재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디딤돌로서 하계 유니버

U대회 한 번 실패에 실망말자

행히 여러 시민 단체들이 대회 유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어 반가운 일이다.

필자는 지난 5월 광주 지역 호텔을 대표하여 80여명의 직원과 함께 FISU(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의 손님들을 맞았다.

현장의 모든 직원들은, 지역민들의 열정을 절실하게 느끼며 피곤함도 잊은 채 하나 되어 정성을 다했다. 필자는 광주 태생이 아님에도 여느 타지에서 느낄 수 없었던 진한 감동과 함께, 한 번의 유치 실패로 꺾일 수 없는 가능성을 보았다.

하나 된 광주, 세계 속의 광주, 방문하고 싶은 광주로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유치를 성공시킨 러시아 카잔도 결국 세번째 도전이 아니었던가!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광주 유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메가이벤트의 파급

시야드 대회를 이용한다면, 저녁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광주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대세나 여론의 향방에 민감해, 본인의 의사와 배치되는 경우라도 메이저 그룹에 속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유치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고 긴 여정인지를 망각하거나, 한 번의 실패를 마치 영원히 기회 끝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지역민 모두가 뜻을 모아 열원의 불씨를 되살려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미미하게나마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다면, 광주 시민, 각 행정 기관, 시민 단체 등 각계각층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또 한 번 새로운 역사의 주무대가 되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신양파크호텔 총지배인>

장미 한 포기 로열티가 1,500원... 국산 품종 개발 시급

형님이 무안에서 9년째 장미를 재배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장미 하우스를 그냥 받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며 힘들어 한다.

겨울철에 기름값이 무서워 온도를 높여주지 못해 장미 수확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여기에도가 로열티까지 만만치 않아 화훼농가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형님은 마을 젊은 농가들과 함께 4가구가 합쳐서 영농조합을 만들고 장미 농사 1년에 1억5천만원정도도 번다. 하지만 여기서 난방비와 자체비, 로열티를 제외하고라면

고작 5천만원정도 순수익이 남는다고 한다. 그것을 네집이 나누니 얼마나 남겠는가. 기름값도 문제지만 로열티가 더 문제다. 외국산 장미 목본 한 포기에 로열티가 1천500원 정도라고 한다. 언젠가 농민들을 위해 나오는 신문을 봤더니 이렇게 내는 로열티가 1년간 7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국산 장미 품종은 5%도 안된다고 들었다.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토종 장미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난방비로 힘든 농가가 로열티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홍명호·광주시 서구 동암동

Kisti의 과학향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재인

“엄마, 저거 꼭 새둥지 같아요!” 초등학교를 마치고 소파에 별첨 누워 TV를 보던 주형이가 외쳤다. 다음 달에 열릴 베이징 올림픽을 다룬 프로그램에서 주경기장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었다.

거대한 철근을 아무렇게나 포개어 놓은 듯 보이지만 불규칙한 각도 속에 또 안정감이 있도록 설계했다는 걸 너 식은 알까. 건축도 과학인데.

“에게... 어떻게 비눗방울로 수영장을 만들어~”

안 그래도 요즘 건축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위터큐브(국립수상경기센터)'가 주형이에게는 시사한가 보다. 그냥 지나칠 수 없겠다 싶어 아들 주형이를 위해 나건축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주형아, 우리 나가서 비눗방울 놀이 해볼까?”

“에이 비눗방울은 금세 터져버리잖아요. 약해서 재미없어요.”

“비눗방울의 감춰진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지.”

“풀었지.” “그럼 어떻게 건축에 쓰인 거예요?” “플라토의 비눗방울 실험에서 생긴 비눗방울 실험을 따라 건축을 하면 아주 가능하면서도 압축과 장력이 잘 견디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최소한의 힘으로, 최소의 부피로, 최대의 강도를 지닌 구조를 만들게 되었으니 정말 신기하지? 1993년 영국의 물리학자 웨이어(Denis Weaire)와 펠란(Robert Phelan)은 어떤 공간을 최소한의 표면적으로 덮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 즉, 셀(cells)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이를 웨이어-펠란 구조(Weaire-Phelan structure)라 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용해서 2008년 북경 올림픽 수영장을 지었지.”

“와! 그리고 보니 수영장과 비눗방울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아빠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게다가 웨이어-펠란 구조는 물 분자 구조와 유사하단다.” “그런데 아빠! 수영장 건물 표면이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웨이어-펠란 구조를 탄생케 하는 근원을 제공한 것은 영국의 물리학자인 켈빈경(Lord Kelvin)이야. 그는 최소 표면적을 만들어 내는 형태를 6각형과 4각형으로 구성된 단일 형태로 제안했는데, 웨이어-펠란은 두 종류의 다른 형태의 기포가 섞이면 전체 표면적이 더 작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모양을 섞는 건데요?” “14면체와 12면체를 합친 건데, 14면체(마주 보는 6각형 2면, 나머지 12면은 5각형) 3쌍과 12면체 1쌍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본형태가 되고, 이것을 반복하면 어떤 공간의 표면이라도 최소의 표면적을 만드는 거품막이 완성되는 거지. 너한테는 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기본 형태는 4가지의 구조와 4가지의 절점의 반복되는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각 절점은 물 분자 구조의 결합각인 104.5°와 유사하단다.”

“목욕탕에 비누거품 만들어 줘요, 거품 높이하게요~”

“나가서 안 놀고?”

“비눗방울 놀이는 목욕탕이 제격이죠.”하면서 벌써 주형이는 목욕탕으로 돌진하고 있다.

<어린이건축교실 운영위원>

비눗방울로 만든 베이징 올림픽 수영경기장

“비눗방울의 감춰진 힘이라고요?” “그럼, 비눗방울 구조로 건물도 지을 수 있지.”

“그재 TV에서 눈을 돌리는 주형이에게 나건축사는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정사면체 모양의 철사 틀을 만들어 내놓는다.

“자, 이 철사 틀을 비눗물에 담갔다 빼면 어떤 모양이 될까?”

“각 면에 비누막이 생기겠죠. 아닌가요?”

“나건축사는 비눗물에 구부린 철사를 담갔다 뺐다.

“자, 정사면체 모양의 비누막 안에 또 뭔가가 만들어졌지? 이 때 모든 모서리를 따라 생긴 비누막은 최소의 넓이를 가지고, 정사면체 내부에 갇혀진 작은 정사면체 모양을 만들어낸단다. 이걸 절점에 물리화학자의 이름을 따서 플라토 문제(platons's problem)라고 하는 거야.”

“플라토 아저씨가 비눗방울 구조로 건물을 만들 수 있게 했어요?”

“플라토는 비눗방울의 감춰진 물리학적, 수학적 매력을 알게 해준 사람이다. 사실 어떤 면이 만들어내는 최소면적이 어떤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이탈리아 태생의 프랑스 수학자 라그랑주(Joseph Louis Lagrange)가 제기했는데, 이를 플라토가 비눗방울 실험으로

“비눗방울을 놀이는 목욕탕이 제격이죠.”하면서 벌써 주형이는 목욕탕으로 돌진하고 있다.

<어린이건축교실 운영위원>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website details.